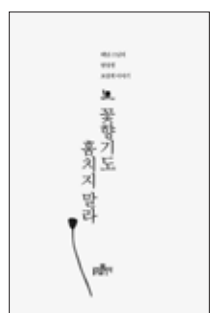


교계 인사들이 추천하는 책

새해에는 이 책을 꼭 읽읍시다

받았어도 잘 모르는 계 이야기



꽃향기도 흠치지 말라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의 책 <꽃향기도 흠치지 말라>는 계율에 관한 생활법문서이다. 책은 일생을 율사로 정진해 온 스님이 불자들에게 자신이 받는 보살계(10종대계 및 48경구계)의 의미와 내용, 이를 어떻게 지키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쉽고 친절하게 담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소승의 율장과 <범광경>에서 말하는 보살계가 어떻게 다른지, 왜 보살계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 누구나 참된 보살의 실천행을 바르게 알고 더욱 열심히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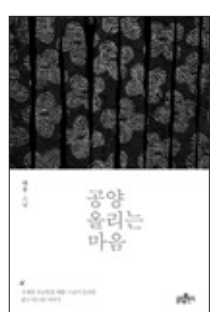
혜남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값1만3000원



새아침이 밝았다. 새해 새날이 되면 모두 새로운 각오 한가지씩은 한다. 그 가운데에는 “올해 어떤 책을 읽겠다”는 바람도 있다. 불자들은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할까? 최근 불교계 출판 도서 가운데 불자들이 선택한 책들을 모아봤다. 임진년 새해에는 이 책만큼은 꼭 읽어 보자.

정리=이은정 기자 soe94@hyunbul.com (도서 선정에 도움 주신 분=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군법사 실원 스님, 통도사 정도 스님, 금강대 석길암 HK교수, 동국대 김호국 연구교수, 이명령 역경위원, 홍성란 유심아카데미 원장 등)

수십 년 법문 책으로 공양



공양올리는마음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포교원력이 말과 글로 오롯이 담긴 책, 법문집 <공양 올리는 마음>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대기설법 하듯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근기에 맞춘 주옥 같은 말씀들이 풍부한 예화와 함께 실려 있다.

대중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혜총 스님의 밝고 따스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을 읽다보면 혜총 스님이 조근 조근 바로 곁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생생한 법문은 매우 재미있고 감동적이다.

혜총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000원

인간은 이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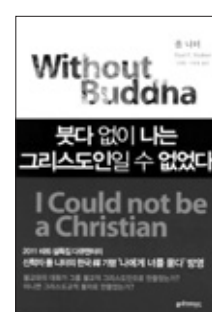


이기적 유전자 세계적인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책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를 연장한 개념인 ‘밈’ (문화 유전) 이론과 후속작 ‘확장된 표현형’의 선구적인 개념도 제시한다.

30년 동안 이어진 학계와 언론의 수많은 찬사와 혹평 속에 이 책은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할 과학계의 고전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리처드 도킨스 지음 | 율유문화사 펴냄 | 1만 8000원

불교에서 찾은 그리스도교 해답



붓다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종교다원주의신학의 세계적 석학 폴 니터 교수의 저서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는 몇 년 전 미국에서 발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다. 책은 니터 교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의문점을 불교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개인적 경험의 고백서인 셈이다.

폴니터 지음 | 정경일·이창영 옮김 | 클리마마인드 | 1만9000원

여류 종교학자의 자기이야기



마음의 진보 영국의 종교학자이자 사상가인 카렌 암스트롱은 처음부터 순탄하게 종교에 귀의하지는 않았다. 1962년, 17살이던 소녀 카렌 암스트롱은 신을 직접 찾고 싶다는 열정으로 수도원에 들어간다. 그러나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체험하리라 기대했던 수녀원 생활은 어린 수녀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절제와 순종의 고통만 안겨준다. 카렌은 신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절망감을 안고 1969년 환속한다. 7년간의 수녀 생활은 카렌의 마음을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바꾸어놓은 뒤였다.

<마음의 진보>는 카렌이 7년간 수녀 생활을 그린 <좁은 문>의 두 번째 이야기로 환속한 이후의 생활과 자살을 시도하던 시련의 시기, 새롭게 다시 종교를 만난 이야기 등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카렌 암스트롱 지음·이희재 옮김 | 교양인 펴냄 | 1만 8000원

티베트를 벗어나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

지난 해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자살이 잇따라 많은 불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티베트 승려들은 티베트 사회를 절권통치하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티베트가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티베트와 중국정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 북서부 다람살라에 티베트망명정부를 설립한 상황이다.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은 그런 티베트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티베트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자연친화적이고 불심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책은 티베트를 단순히 ‘활빙관광지’ 등으로 여기는 한국인들에게 일침을 놓아준다.

폴 인그램 지음 | 홍성녕 역 | 알마 펴냄 | 1만9800원

틱낫한 스님의 ‘엄마’ 이야기



엄마

“엄마의 뱃속에서 머물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틱낫한 스님은 책 <엄마>에서 우리에게 묻는다.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한번쯤 지냈을 미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평안한 미소였다. 아무 걱정 없었던 자궁(子宮)은 말 그대로 자식들의 공굴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벽한 극락 같은 곳이 어딘가에 있음을 어렵듯이 느끼며 그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열망한다.

틱낫한 스님은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공굴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엄마와 우리가 하나인 이유, 영원히 변치 않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 법, 엄마에 대한 화와 실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법, 엄마를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다.

틱낫한 지음·이도훈 역 | 아름다운인연 펴냄 | 9800원

달마도를 한눈에



개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

종교 전문작가 김나미 박사가 펴낸 <개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는 저자가 1992년부터 <해인>지에 ‘달마를 찾아서’를 타이틀로 5년간 연재했던 원고를 모은 것이다. 저자는 연재를 하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절과 암자를 다니며 달마도에 관한 자료와 글을 수집해 하나로 모아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를 펴내기도 했다.

저자는 “달마도는 선종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인가 증명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제자에게 전해주는 일에서 비롯됐다”며 “흔히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 스님은 그것을 그린 사람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까닭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다.

김나미 지음 | 윌렛출판사 | 1만6000원

문광부등록141호 (1994년2월18일인가)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제1차 전국지부 설립



◆ 법인 등기부 지부명, 종단명 등재 완료 ◆ 2012년1월까지 전국50개 지부 설립예정.

(제1차 지부설립종단)

3대 실천 목표

1. 대 통합의 한불총으로

- 1) 군소종단 단체 등록으로 구성 (전국 50개 종단으로 50개 지부개설)
- 2) 전국 불자 거사림회 구성조직화 (한불총 자선사업에 후원으로 구성)
- 3) 전국 불자 여 신도회구성 조직화

2. 이타행의 한불총으로

- 1) 독고노인돕기(백미,의복,연탄등등)
- 2) 소년소녀가장돕기(장학금,생활보조금등)
- 3) 불우청소년돕기(장학금,생활보조금등)
- 4) 장애인돕기(장학금,생활보조금등)
- 5) 수해이재민돕기·농어촌일손돕기·소외된 노인돕기

3. 의식 개혁의 한불총으로

- 1) 식생활 개선
- 2) 법회 의식 개선
- 3) 우리말 경전보급
- 4) 도심속 생활불교
- 5) 복지시설 건립 등

지 부 명	등재 일자	종 단 명	총무원장 법 명	속 명	지 부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지부	2007.10.10	대한불교불이종	학 운	강호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2, 5층
경기도 지부	2011.12.09	대종불교조계종	개 명	장선영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선유동길 79
부산광역시 서구 지부	2011.12.09	한국불교조계종	자 화	한영수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
경상남도 창원시 지부	2011.12.09	미륵불교조계종	보 덕	박용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신촌본포로 108
경상남도 김해시 지부	2011.12.09	대한불교삼보종	법 장	송원진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405번길 73-33
충청북도 옥천군 지부	2011.12.09	세계불교세심종	범 흥	류경남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산로 513
경기도 성남시 지부	2011.12.09	대륜불교조계종	도 암	조병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수정북로 40-1
경상북도 상주시 지부	2012.01.02	정법대승불교조계종	고 림	김수영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산 112-2
경기도 의정부시 지부	2012.01.02	대한불교삼학종	일 정	배상덕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9-94
강원도 횡성군 지부	2012.01.02	대한불교유마종	관 봉	이창주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로
경상남도 지부	2012.01.02	세계불교지도자연맹	법 장	송원진	경남 김해시 가야로 405번길 73-33
경상남도 밀양시 지부	2012.01.02	연꽃마을사람들	수 원	최범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산58-4
경기도 동두천시 지부	2012.01.02	용화세계미륵종	금강성	최숙희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503-1
대구광역시 동구 지부	2012.01.02	한국불교미륵천왕종	법 우	석미숙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549-3
서울광역시 관악구 지부	2012.01.02	세계불교 법왕칭	무 해	김길수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30-2

한불총 가입 절차 요령

- ◆ 소정서류 양식참조 (한불총 비치)
- 서류심사후 결정
- 법인단체등록증발급
- 지부법인 등기부 등재
- 지부위원장 임명장수여(현판부착)
- 문의전화 ☎ 051)465-3255

한불총은 18년 전 불교연합단체로 문화관광부에 (141호)정식 등록된 불교계에 유일한 단체이며 불가는 물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단체로 오늘날까지 번영하고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부터 전국 지부를 50개 이상 설립하고 「받아서 되 돌려주는 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해 각 지부장은 지역 년중 행사를 삼고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을 병행하므로 불교도 건설이 앞 당겨 질 것입니다.

- 다 함께 성불 합시다. -